

7기 차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평가틀거리

발신 :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수신 : 어여쁜 단여 집행부 및 단여운위

0. 들어가며

드디어 대동학교가 끝났습니다. 3일간의 일정이지만, 모두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4월 네째주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힘들었던 대동학교이지만, 평가를 확실히 진행하고, 후속작업 또한 구체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함께 만들었던 대동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평가를 하고, 다시 함께 박차를 가해가는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주 26~27일엔 전여대협 총회가, 5월 첫째주에는 대경총련 출범식이, 이후 5월달에는 일정이 짝박하게 있습니다. 또한, 이번주에는 시험또한 많습니다.

각개로 흩어져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정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짜들어가는 것만이 이렇게 바쁜 시기를 지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위상과 의의에 비추어 평가해봅시다.

7기 대동학교의 위상과 의의는 이러하였습니다.

1. 4·9로 모아진 새내기들을 다시 총화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올바른 삶에 대한 고민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총화해주어야겠다.
2. 어느때보다 의식수준이 높은 새내기들, 4·9를 지나며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진 새내기들에게 고민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3. 의식수준이 높은 새내기들이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새내기들에게 지금까지의 대동학교처럼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남기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실천하게 해야겠다.
4. 단순한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만을 풀지 않도록 하여 자주적 여학생회의 사상이 여성자주화 사상이라는 것을 새내기뿐만 아니라 학생회까지도 합의하도록 하는 장이어야겠다.
5. 4·9를 지난 뒤의 시기이지만, 전단위의 결집력을 높여 복원 전체가 집중하여 어울림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2.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봅시다.

7기 대동학교의 목표는 이러하였습니다.

1. 여학생간부들을 4·9제까지의 투쟁을 거치며 활동가로, 대중간부로 굳건히 세워내자.
2. 여성자주화사상이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자주적 여학생회에 대한 상을 합의한다.
3.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여성문제를 깊게 고민하게 하여 대동학교 이후에 단위에서 여연, 탁아 후원회, 정신대 후원회 등을 건설하고, 기존의 여연, 탁아소모임을 안착화 시켜낸다.
4. 우리 대오내에서 여학생회와 여학생운동을 합의한다. (교사교양에서 학생회간부들까지 참가하도록 하여)
5. 중앙과 단위, 과가 같은 감으로 사업을 가져가 체계를 확립시킨다.

★ 각 단대와 단여의 경우 단대 나름의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또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준비과정을 평가해 봅시다.

★단대와의 대동학교 간담회 - 단여가 없는 단위는 직접 총여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간담회가 어떠하였는지, 단대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해 봅시다.

★2~3번의 교사교양 - 어느해보다 교사교양을 많이 진행했던 대동학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교양에 대해 꼼꼼히 평가해 봅시다. 이런 내용은 어려웠다, 이런 내용은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총여가 어떻게 지도를 하였는지, 단여가 어떻게 준비를 하였는지 상세히 평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구체적 일정을 꼼꼼히 평가해 봅시다.

첫째날 (4월 14일)

4:30 ~ 5:00 입 학 식 (민주광장)

5:00 ~ 5:30 문화공연 (대강당)

5:30 ~ 7:00 강 연 (대강당)

7:00 ~ 8:30 분임토론 (조별로)

둘째날 (4월 15일)

3:00 ~ 4:00 단대시간 (단대별)

4:00 ~ 6:00 '채상속으로' (복현골 곳곳)

6:00 ~ 7:00 '채상속으로' 정리, 발표(민주광장)

7:00 ~ 8:30 분임토론(조별로)

★채상속으로의 경우는 각 단대에서 주제별로 어느 과가 참가했다는 것을 총화하시고, 주제별로 꼼꼼히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날 (4월 16일)

4:00 ~ 6:00 단대시간(단대별)

6:00 ~ 6:30 졸업식(대강당)

6:30 ~ 7:00 총여학생회 출범식(대강당)

7:00 ~ 대동놀이(민주광장), 단대별 뒷풀이

단대 주체모임에 관해서도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더 진행하면 총화가 잘 될 것 같다는 내용이면 더욱 좋습니다.

5. 단대 나름대로 후속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도 써다.

총여 또한 후속작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나, 단대의 고민을 듣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을 만나며 후속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드는 고민을 써 주십시오.

6. 전여대협 총화에 대하여

대동학교에 이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대동학교와 이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6일, 27일 우리의 조직인 전여대협 총회가 경북대에서 열립니다. 한총련 대의원 대회와 위상을 같이 하는 전여대협 총회인 만큼 우리의 결의 또한 높아야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학생운동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각 단대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성과점으로 잡을 것인지 결의를 써 주십시오.